여시재 전문가 좌담회

"라시나 제르보 CTBTO 사무총장에게 듣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해법"

여시재는 지금

8월 13일 월요일, 여시재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CTBTO)의 **라시나 제르보(Lassina Zerbo)**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전문가 좌담회를 실시하였다. 본 좌담회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국과 CTBTO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은 핵위협을 줄이기 위한 CTBTO의 역할과 성과를 소개하였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획득하는데 CTBT에 가입하여 다시는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CTBT 서명이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목표를 위해 내딛을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북한 비핵화과정에서 CTBTO 가 기여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와 달리, CTBTO는 군사적 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핵실험 금지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은 한반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CTBTO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핵무기 관련분야에서의 CTBTO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며, 대한민국의 언론과 국가 지도자들이 CTBTO를 더 주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좌담회 주요 논의 내용

좌장: 김원수 전 유엔고위군축대표

강연자: 라시나 제르보(Lassina Zerbo)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

좌장: 왕선택 YTN 전문기자, 황일순 서울대 교수, 김영준 국방대 교수

일시 및 장소: 2018.8.13(월) 13:00–14:00 / 여시재 대화당

주최 : 재단법인 여시재

[강연자 주요 논지]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은 핵실험이 더 강력하고 무분별한 핵무기 개발의 단초가 되는 만큼, 핵 폭발을 감시하고 탐지할 수 있는 과학 기반의 검증 시스템, 곧 CTBTO의 국제감시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CTBTO가 핵실험장의 폐쇄 전후 분석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아직 조약이 발효되고 있지 않지만 이미 국제기구로서의 전문기술과 지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기술적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첫번째 단계는 핵실험의 중단과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실험장 폐기에 대한 사전과 사후 검증, 방사능의 유출 정도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이 포함된다. 그는 이 단계에서 진행되는 기술적 검증에 있어 CTBTO가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두번째 단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참여하여 핵물질의 생산여부등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며 세번째 단계는 완전한 핵무기 폐기에 이르는 것이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이러한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한 국가, 한 기구만의 지식과 역량으로 대처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하였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장기적인 프로세스이므로 단계적인 활동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북한의 핵실험 포기에 대한 현재의 구두 약속을 CTBT 조약 서명 및 비준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CTBT 서명이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목표를 위해 내딛을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 밝혔다.

[자유토론]

김원수 전 유엔고위군축대표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왕선택 YTN 전문기자, 황일순 서울대 교수, 김영준 국방대 교수 등이 참여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CTBTO의 차별성,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의 진정성에 대한 평가, 북한의 CTBT 서명이 가져올 신뢰구축효과 등을 논의하였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핵 보유국의 평화적인 핵이용 활동에 집중하는 IAEA와 달리 군사적 무기를 개발할 목적으로 실험을 시작할 경우 CTBTO의 역할과 권한이 적용되며, 두 기구는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에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비핵화를 추진하는 북한이 CTBTO가 담당하는 역할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덧붙였다. 북한 비핵화의 모멘텀이 도래한 현 시점이, 아직 CTBT에 가입하지 않은 북한이 서명한다면 다음 조치로 나아가는 과정에 좋은 신뢰구축 조치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의 진정성에 대해서 제르보 사무총장은 폐쇄과정에서 전문가가 배제되어 검증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 참여로 검증된 폐쇄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필요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첫번째 합의인 핵실험 금지를 위해 설립되어 지난 20년간 축적해온 CTBTO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며, 제르보 사무총장의 방한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언론과 국가 지도자들이 CTBTO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CTBT서명을 끌어낼 수 있다면 한반도 비핵화 과정뿐만 아니라 CTBT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미국, 중국 등 다른 관련국들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 세계적인 핵군축체제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은 앞으로의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한국과 CTBTO의 긴밀한 협력이 계속되기를 희망하였다. CTBT의 원 서명국인 한국이 비핵화 과정을 끌고 나가면서 CTBT의 보편성 확보에도 적극 기여해 주기를 당부하였다